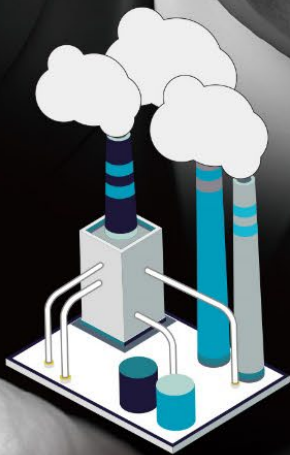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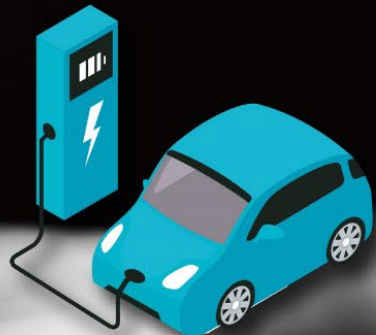


트럼프 2.0, ESG 투자 전략을 다시 쓰다



CCUS



Contents

Summary	4
Part 1 ESG 관점에서 본 트럼프 정책 기조	6
1.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ESG 흐름 퇴보	6
2. ESG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재발 우려	15
Part 2 트럼프의 귀환이 산업 구조에 미칠 파장	21
1. Drill, baby, drill이 가져올 에너지 산업 재편	21
2. 전기차 및 친환경 산업의 새로운 도전	33
Part 3 트럼프 재집권이 글로벌 ESG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37
1. 단기적 효과: 화석연료 및 전통산업 투자 심리 회복	37
2. 중장기적 효과: 글로벌 ESG 모멘텀의 지속가능성	38
Part 4 투자 전략: 트럼프 귀환, ESG 투자자들에게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40
1. CCUS와 혁신 기술로 에너지 산업 재편에 대응	40
2. ESG 투자로 지속가능한 전기차 충전	47
3. ESG 투자 원칙과 접근 방식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전략	51
부록	
1. 화석연료투자 총액 기준 섹터별 TOP 5 금융기관	59
2. 화석연료와 관련된 주요국 연기금의 ESG 투자방침	60

서문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 그의 재집권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글로벌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에 거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두 번째 정부 출범은 미국의 정책 방향 전환 뿐만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ESG 투자는 단순히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지속가능 환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과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기존 ESG 흐름과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동안 파리기후협정 탈퇴와 화석연료 산업 지지 등으로 글로벌 ESG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 트럼프 2.0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그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하고 그린 뉴딜을 종료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로써 트럼프 1기의 기초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ESG 투자 방향에 커다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정책 변화가 가져올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ESG 투자환경 속에서 우리의 ESG 투자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기존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새로운 흐름에 맞춰 ESG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까? 이제는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다.

Summary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녹색 사기(Green New Scam)’라고 말하며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ESG 투자 패러다임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트럼프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과 기후변화 회의적 태도는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과 ESG 투자 방향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흐름과 ESG 투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에 필요한 ESG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Part 1. ESG 관점에서 본 트럼프 정책 기조

1기 집권 당시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저해하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파리기후협정을 다시 탈퇴하며 시작된 트럼프 2.0 시대에도 반친환경 정책(Anti-ESG movement)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기후 리스크 확대를 초래하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ESG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 ESG 친화적 공급망 구축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Part 2. 트럼프의 귀환이 산업 구조에 미칠 파장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2.0 시대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정책 지원과 글로벌 수요 증가는 이들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Part 3. 트럼프 재집권이 글로벌 ESG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단기적으로 화석연료와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ESG 투자에는 단기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ESG 흐름을 되돌릴 가능성은 낮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의 투자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Part 4. 트럼프 귀환, ESG 투자자들에게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기술 혁신은 ESG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CCUS 기술은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망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 에너지 기업도 CCUS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전환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성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전기차 산업은 단기적인 정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전기차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은 ESG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ESG 투자 전략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잃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SG 투자의 핵심은 균형과 선별이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이제는 포지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화석연료 산업을 무조건 배제하는 방식을 넘어 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주주권 행사를 통해 ESG 성과를 제고하는 전략도 필수적이다.

트럼프의 귀환은 ESG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 혁신 기술과 전략적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